

수잔 리 포스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련의 무용 문화연구 경향 연구

김 현 정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I. 머리말

II.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과 특성

III. 학제간 연구 속에서 새로운 무용학의 발전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1. 머리말

본 논문은 문화연구(cultural studies)¹⁾의 특성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 보고, 미국에서 문화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전개된 최근 무용학²⁾ 경향 즉 수잔 리 포스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무용 문화연구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들은

- 1) cultural studies는 문화연구, 문화이론, 문화학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필자는 본 논문에서 문화연구로 통일해서 쓰고자 한다.
- 2) 무용학자 앤 데일리(Ann Daly)는 기존의 '무용사' 연구가 주제, 방법론, 접근방식이 확장되면서 '문화'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새로운 무용학이 형성됨을 지적하면서 '무용학(dance studies)'이란 좀 더 적절한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무용학(dance studies)이란 용어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문학연구(literary studies), 영화학(film studies)과 같이 학문, 연구(studies)란 용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무용학이 다양한 학제간 연구 속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앤 데일리의 논의를 따라 기존의 무용사, 무용이론이란 개념 대신에 1980년대 중반 이후 문화연구와 함께 급격히 발전해 오고 있는 새로운 무용사, 무용이론을 '무용학'이란 폭넓은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Ann Daly(1991). What Revolution?: The New Dance Scholarship in America, *Ballet International* 14, no. 1 (January), pp. 48-53를 참고할 것.

비정전(non-canon) 텍스트의 재조명과 학제간 연구 속에서 몸 담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무용학에 있어서 춤추는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학계에서 소외된 무용학이 다양한 학제간 연구 속에서 ‘학문으로서의 무용학’으로 자리 잡게 하였고, 더 나아가 학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공했음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의 무용계는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에 무용과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 현재 43개의 대학교에 무용과가 있으며,³⁾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에서 약 47개 대학교에 무용과가 있는 미국 다음으로 높다.⁴⁾ 그리고 증가하는 무용과 석, 박사과정 신설을 고려하면 무용 전공자들의 무용학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열기에도 불구하고 무용학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채 여전히 학계의 주변에 남아있다. 일부 학자들은 실기위주의 대학교 무용교육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대학은 예술가를 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예술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아카데미아”라고 주장한다.⁵⁾ 오늘날 인문학과 기초학문의 위기는 대학교육의 위기를 가져왔고,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 속에 경쟁력과 시장성이 떨어지는 전공이나 과는 통폐합 되기도 한다. 무용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대학은 계속된 정원미달로 무용과를 아예 폐지하거나 체육과로의 통폐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용학은 학문적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재정비가 시급하리라 생각되며, 무용학의 독립성과 학제간 연구 속에서의 상호인식과 실천이 중요하기에, 미래지향적인 무용학 발전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 문화연구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본다.

국내에서는 문화연구가 인문학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문학연구, 영화학, 미술사, 대중문화, 언론학, 여성학 등과 연결되어 몸 담론을 활성화시켜 왔으나, 정작 몸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3) 무용관련 기관,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 제 1호, (2005년), pp. 273-274.

4) Guide to Dance Resources <<http://www.library.wisc.edu/guides/Dance/universityprogs.htm>>; 한국의 대학교 무용과의 수치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높다는 사실은 여러 문헌을 통해 제시되어 오고 있고 국내 무용계에서는 어느정도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애 외 공저(2001). 『우리무용 100년』, (서울: 현암사), pp.151-153을 참고할 것.

5) 『댄스포럼』(2005), 춤예술의 기초는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효명세자 기념 사업회를 발족해 학술행사 갖는 김말복씨, 10월호, p. 76.

있는 무용학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문화연구에 있어서 비정전에 대한 재조명은 무용이 학문이 되기 어렵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문화연구가 어떻게 무용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함이 중요하리라 본다. 무용학 발전을 위해 문화연구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논의는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조기숙의 논문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무용학 현황을 인문학적 접근, 사회과학적 접근, 자연과학적 접근, 기타 학제간 연구로 나누고, 대표적인 무용학자들이 무용과 상호텍스트성, 여성주의적 접근, 남성성, 사회학, 인류학, 현장조사, 무보학, 의상, 음악, 현상학과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⁶⁾ 이는 영국 무용학자들의 최근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무용학 발전을 위해 무용학의 독립성과 학제간 연구 속에서의 발전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 성과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자는 국내 학계에서 주변화된 무용학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우선 세계적인 무용학 경향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에 소개하며 비판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시각과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미국의 대학교 무용과 수치가 전 세계에서 1위라는 점과 학문의 발전이 대학 교수들의 연구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사례연구에 초점을 둔은 타당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문헌연구와 본 연구자의 미국 유학경험을 토대로 하여,⁷⁾ II장에서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과 특성을 고찰할 것이며, III장에서는 문화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최근 무용학 경향 즉 수잔 리 포스터(Susan Leigh Foster)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련의 무용학자들의 최근 학문적 경향과 특징을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무용학 문헌들 측면에서, 학회 및 학회지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포스터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러한 무용학 경향은 무용학 연구에 있어서 포스트구조

6) 조기숙(2005). 서구의 무용학 현황과 한국의 무용학 발전을 위한 일 제언. 『대한무용학회』44, pp. 213-229.

7) 필자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무용과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본 논문에서 논의하게 될 여러 명의 무용학자들의 강의를 수업시간, 학회, 세미나 등에서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내부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외부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연구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연구가 미국의 학계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의로의 진보를 보여 주었고 기존의 무용사를 재검토하여 무용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of dance) 분야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들의 연구 경향과 특징이 기존의 연구와 어떻게 다르며 학계에서 소외된 무용학의 위치에서 벗어나 학제간 연구 속에서 무용학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IV장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 무용학의 비전과 전망을 모색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포스터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만을 다루기에 무용 문화연구의 모든 경향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무용학의 다른 분야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무용학이 학계에서 고립되고 주변화된 것이 아니라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다학문 교류를 주장하는데 어느 정도 연구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과 특성

문화연구는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다문화주의, 마르크스주의, 신역사주의, 기호학, 정신분석학, 해체이론,⁸⁾ 페미니즘 등의 이론적 방법론들을 포괄하는 일종의 우산과도 같은 폭넓은 개념이다.⁹⁾ 문화연구는 지배문화의 제도와 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기존의 가치관들이 문

8)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만든 ‘해체(deconstruction)’은 의미가 생산되는 과정이 구조주의적 논리체계 속에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과 고정관념에 의해 구축된 것이기에 권력관계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공모가 있음을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앤드류 에드거, 피터 세즈워(역음)(1999). 『문화이론 사전』, 박명진 외(역)(서울: 한나래, 2003), pp. 483-485를 참고할 것.

9) 문화연구의 기원은 1950-60년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와 리처드 호가트(Richard Hoggart)의 저서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Richard Hoggart (1957). *The Uses of Literacy* (London: Chatto and Windus); Raymond Williams(1961). *The Long Revolu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R. Williams(1958).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영국 문화연구의 공식적인 시작은 1964년 호가트와 스튜어트 홀(Stuart Hall)에 의한 버밍엄 현대문화 연구소(Birmingham Center for

화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축된 것이기에 비판적인 재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인문학이 주로 정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문화연구는 정전뿐 아니라 거대담론으로 인해 소외된 비정전 텍스트들—대중문화, 영상, 잡지, 광고, 음악, 미술, 일상생활의 실천등—을 연구대상으로써 폭넓게 수용한다. 그리고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은 젠더, 인종, 계급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실천들과 정체성, 이데올로기, 표상, 의미, 차이의 이슈들을 ‘사회권력’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다.¹⁰⁾

문화연구의 자연적인 것(the natural)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의 기표와 기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스위스 언어학자이자 기호론의 창시자인 드 소쉬르는 기호(sign)를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표는 기호가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글로 표기될 수도 있고, 소리로 말하여질 수도 있다. 기의는 기호의 개념적 부분으로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드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와의 관계가 어떤 당연한 자연적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에 임의적, 자의적이라고 논한다.¹¹⁾ 예를 들어, 특정 시대에 한 사회 속에서 책을 놓고 공부하는 네모난 탁자를 ‘책상’이라고 말한다면 책상이라고 말하는 행위 또는 글쓰기는 기표에 해당하고, 책상이 갖는 개념은 기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일 내가 다른 사회문화권 속에서 그 탁자를 공부하는데 쓰지 않고 밥을 먹는 식탁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면 내게 있어서 그것은 책상이 아닌 밥상인 것이다. 따라서 책상이라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기표와 기의 관계이론은 점차 기호학으로 발전되어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와 같은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설립에 있다. 이 연구소는 문화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을 추구하다가 점차 사회학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대중적 하위문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미국의 문화연구는 버밍엄 모델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영국 문화연구에 비해서 연구 대상이 좀 더 폭넓고 다문화주의와 연결되어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대중문화 등의 이슈들을 다룬다. 이상의 내용은 조셉 칠더즈, 게리 헨치(편)(1995). 『현대 문학, 문화 비평 용어사전』, 황종연(역) (서울: 문학동네, 1995), pp. 131-132 에서 재인용.

10)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음. 앤드류 에드거, 피터 세즈워(역음)(1999), pp. 164-165; 김성곤(2003), 『문화연구와 인문학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p. 13-15.

11)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음. 앤드류 에드거, 피터 세즈워(역음)(1999), pp. 90-97.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범주의 문화 현상, 실천들이 특정 시대의 문화적 코드와 관습에 따라서 사회권력 속에서 작동되는 기호로서 파악하게 된다.¹²⁾

문화연구의 특성을 살펴보면,¹³⁾ 첫째, 사회권력이 문화적 관습을 어떻게 규정짓는지를 연구한다. 둘째, 문화는 사회학적, 정치학적 맥락과 복합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정치적이다. 셋째, 문화는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동적 장소이다. 넷째, 정전과 비정전의 이분법을 합리화하는 사회권력을 폭로하고,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여 연구대상의 타자화를 방지한다. 다섯째, 자본주의 사회체계를 인식하고 정치적, 도덕적인 비판과 더불어 사회구조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문화연구의 방법론이나 이론은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두루 걸치는 폭넓은 우산과도 같은 개념이기에 문화연구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문화산물이 생산, 소비, 분배되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를 연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 방법이나 이론에 있어서 제도화된 기존의 학문분야와는 다르게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의 모든 분야의 이론과 방법론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빌려와서 쓰기에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며,¹⁴⁾ 제도화된 학문에 구속받지 않기에 반학문적(antidisciplinary)이라 하겠다.¹⁵⁾

문화연구의 이러한 비판적 이해는 사회학, 역사학, 민족지학, 문학비평, 인류학, 사회 생물학 등 문화를 연구하는 인문학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크게 끼쳤으며, 이성 중심의 서구 지성사에서 소외된 몸에 대해 재검토하게 하였다. 문화연구에 있어서

12) 이들의 이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였음. Roland Barthes (1967). *The Elements of Semiology*.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 Colin Smith (New York: Hill & Wang, 1978); R. Barthes (1958).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New York: Hill & Wang, 1972); R. Barthes (1977). *Image, Music, Text*. Translated by Stephen Heath (New York: Noonday Press, 1988); Umberto Eco (1976).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3) 지아우딘 사르다르(1997). 『하룻밤의 지식여행: 문화연구』, 이영아 (역)(서울: 김영사, 2002), p.13.

14) 뱀 애거(1992). 『비판이론으로서의 문화연구』, 김해식 (역)(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6), p. 42.

15) 지아우딘 사르다르(1997), p. 12.

몸은 의미의 장소로써, 문화적 정체성이 체현되는 장소로써 중요하게 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몸이 권력과 지식이 작동하는 장소이자 그 권력에 저항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장소임을 강조하였고,¹⁶⁾ 이는 몸이 문화사의 핵심 요소가 됨을 학자들에게 인식시켜 학제간 연구 속에서 몸 담론을 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해체주의적 접근은 의미와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무용학에 있어 춤추는 몸이 의미와 정체성을 보여주고 때로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게이와 레즈비언 연구를 포함한 젠더 연구,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이브 코소프스키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과 같은 학자들이 논의하는 수행성(performativity)¹⁷⁾은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춤추는 몸이 수행적으로 실제 움직이며 의미를 생산하기에 무용학의 발전에 더욱 공헌하게 된다.¹⁸⁾ 이러한 문화연구의 급성장은 학계에서 비정전으로 소외되어온 무용학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III. 학제간 연구 속에서 새로운 무용학의 발전

1. 무용학 문헌 측면에서의 고찰

본문에서는 수잔 리 포스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련의 학자들의 연구 경향과 특

16) 푸코의 이론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미셸 푸코(1975).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역) (서울: 나남출판, 1998); 미셸 푸코(1976). 『성의 역사: 제 1권 앎의 의지』, 이규현(역) (서울: 나남출판, 1997).

17) 버틀러는 섹스/젠더의 구분을 해체하면서 성적 정체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됨(performativity)으로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행성의 개념은 영국 언어학자 오스틴(J.A. Austin)의 발화(utterance)의 두가지 유형에서 비롯된다. 오스틴에 의하면, 진술적인 발화는 진실이나 허위를 말하는 반면, 수행적인 발화는 스스로 말하고 있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이를 확대 해석하면 모든 발화가 수행적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규범과 법 앞에서 인간은 젠더를 강박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남자로서 여자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옥희(1999). 법앞에선 수행적 정체성. 『여성이론』 1, pp. 256-258을 참고할 것.

18) 이들의 이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였음. Judith Butler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Judith Butler (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성을 고찰하여, 기존의 무용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학계에서 주변화된 무용학이 인접 예술 분야와 인문사회학 분야와의 역동적인 교류를 통해 무용학의 중요성을 사회에 어떻게 인식시켰는지에 초점을 둔다.

가. 무용과 안무에 대한 기존 개념의 확대

무용학은 대개 무용사, 움직임 분석, 인류학, 미학, 교육, 치료, 안무, 무보법 분야의 방법론들로 나뉘어져 발전되어 오다가, 1986년에 미국 무용학자 수잔 리 포스터¹⁹⁾의 저서 『무용 읽기: 미국 컨템포러리 댄스에 나타난 몸들과 주체들(Reading Dancing: Bodies and Subjects in Contemporary American Dance)』가 출판되면서 무용학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²⁰⁾ 문학과 문화비평에서 인식론적 대변화를 가져온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가 주체와 몸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고 표상이론을 재고려 하였듯이, 포스터도 기존의 무용학 연구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무용에 나타난 표상이론을 전개

York: Routledge); Eve Sedgwick (1993). *Queer Performativity. GLQ: A Journal of Gay and Lesbian Studies* 1, no. 1, pp. 1-16; 이에 대해서는 Jane C. Desmond (1997). Introduction, *Meaning in Motion: New Cultural Studies of the Dance*. Jane C. Desmond (ed.)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 4, 22에서 재인용.

19) 무용수, 안무가, 무용학자인 그녀는 발레와 현대무용 실기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77년부터 자신의 작품들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UCR)에서 무용과 박사과정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UC, Santa Cruz의 History of Consciousness Program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약 12여년간을 UCR에 재직하다가, 현재는 UCLA Department of World Arts and Cultures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의 세부 전공은 몸 담론과 안무, 역사, 이론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UCLA Department of World Arts & Cultures Faculty <<http://www.wac.ucla.edu/person.php?pid=18>>를 참고할 것.

20) Jacqueline Shea Murphy & Ellen W. Goellner(eds.) (1995). Introduction: Movement Movements: *Bodies of the Text: Dance as Theory, Literature as Da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 2; 포스터의 저서가 무용학 발전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음을 지적하는 문헌으로는 이외에도 다음을 참고할 것; Gay Morris(ed.)(1996). *Moving Words: Re-writing Dance* (New York: Routledge), p. 5; Cynthia Jean Cohen Bull (1997). Sense, Meaning, and Perception in Three Dance Cultures. *Meaning in Motion*. Jane C. Desmond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285; J. C. Desmond (1997). Embodying Difference: Issues in Dance and Cultural Studies. *Meaning in Mo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 52.

하고 있고,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진보를 보여 준다.²¹⁾

1980년대 중반까지의 무용학은 주로 정전 위주로 구성되어, 위대한 안무가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 미학적 가치평가, 일대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무용사 발전에 어느 정도 주요 공헌을 하였으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기 보다는 순간적인 공연예술로서의 무용과 미적 범주화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특정한 형식들이 발전했는가를 제공할 뿐이었다.²²⁾ 무용과 몸에 대한 전통적 논의들은 무용을 인간 경험의 근원적, 리비도적 측면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매체로써 보고 있다. 즉, 무의식적인 감정을 위한 출구로서 무용은 언어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자발적이고, 우아하고, 에로틱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²³⁾ 무용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안무자의 천재적 재능과 영감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무용의 신체적, 감각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고 이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무용을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문화연구는 앞서 논의했듯이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여겨진 것들이 문화적, 역사적 범주로서 구성되어진 것이기에 비판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연구의 비판적 시각은 무용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용에 있어서 몸과 신체 움직임이야말로 전형적인 자연적 현상이고, 사유나 에이전시(agency)²⁴⁾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터는 바르트와 에코의 기호학을 근거로 무용 움직임을 기호로서 파악하고, 기표인 움직임과 움직임을 지칭하는 개념 즉 기의 사이에는 ‘비자연적’ 관계가 있음을 논의한다. 즉 무용의 의미는 체계적인 안무 코드와 관습의 결과로서 문화적 동의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몸과 무용을 기존의 고정관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관념들로부터 분리하여 문화적

21) Susan Leigh Foster(1986). *Reading Dancing: Bodies and Subjects in Contemporary American D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xix-xx, 234.

22) Jane C. Desmond(1997), p. 1.

23) Susan Leigh Foster(ed.)(1995). *Choreographing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11.

24) 에이전시는 지배적 담론과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일종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말한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다.²⁵⁾

포스터의 이러한 논의들은 저자와 텍스트에 대한 바르트와 푸코의 포스트구조주의적 논의를 반영한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존재로서의 저자를 강조하여 저자의 특권을 부인한다.²⁶⁾ 바르트는 작품과 텍스트를 구별하여 독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작품(work)은 그 의미와 해석이 저자에게 소속되어 한정되어 있기에 독자는 단순한 소비자인 반면, 텍스트(text)는 저자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에 의해서 다층적이고도 열린 의미가 생산되기에 독자가 의미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가 된다.²⁷⁾ 이러한 독자 중심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포스터로 하여금 안무가, 무용수, 관객의 권력 관계를 기존과 다르게 재구성하여 의미를 생산하고 전복시키는 힘이 무용과 안무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포스터는 그녀의 대표적인 (편)저서에서--『역사를 안무하기(Choreographing History)』(1995), 『신체성들: 지식, 문화, 권력을 춤추기(Corporealites: Dancing Knowledge, Culture, and Power)』(1996), 『안무와 내러티브(Choreography and Narrative)』(1996)-- ‘의미가 충만한 신체성’과 ‘안무로서의 무용읽기’라는 심층적 논의를 전개해 춤추는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였다.²⁸⁾ 즉 무용을 천재적인 예술가에 의한 숭고한 작품으로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다각도로 영향을

25) 바르트의 문화 기호학적 분석은 포스터의 이론 전개에 중요하다. 바르트는 일본 분라쿠 인형극과 세 가지 종류의 글쓰기를 논의하면서 분라쿠 인형극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간주될 수 있고, 세 가지의 분리된 글쓰기 형태로 (꼭두각시 인형들의 표현적 움직임, 인형을 조종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움직임, 가수이자 나레이터의 목소리의 몸짓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Roland Barthes (1977). *Lesson in Writing. Image, Music, Text*. Translated by Stephen Heath. New York: Hill & Wang, pp. 170-178). 이러한 바르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스터는 신체 움직임을 일종의 글쓰기의 형태로 파악한다. 바르트의 이러한 견해는 포스터의 다음 책들에도 인용되어 있다. Susan Leigh Foster (1986), p. 229; S. L. Foster(ed.)(1995), p.11.

26) 이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할 것. 미셸 푸코(1969). 저자란 무엇인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역음) (서울: 눈빛, 1999), pp. 45-63.

27) 이 내용은 다음 책들을 참고할 것. 롤랑 바르트(1977). 작품에서 텍스트로.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역음) (서울: 눈빛, 1999), pp. 35-44; 롤랑 바르트(1977). 저자의 죽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역음) (서울: 눈빛, 1999), pp. 27-34.

28) 『신체성들(Corporealities)』에 참가한 학자들은 무용학자 Susan L. Foster, Mark Franko, Heidi Gilpin, Lena Hammergren, Sally Ann Ness, Nancy Lee Chalfa Luyter, Marta E. Savigliano, Linda J. Tomko, 공연학자 Peggy Phelan, 사회과학자 Randy Martin 등이 있다. 각주 31, 46과 마찬가지로 무용학 연구에 있어서 무용학자

미친 사회, 문화, 정치, 역사학적 영향들에 주목하고, 체현된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무용에 주목하였다. 그녀의 (편)저서들의 제목에서 보이는 동명사형 ‘안무하기’ ‘춤추기’는 역사를 움직이고 창조할 수 있는, 지식과 권력, 문화를 춤출수 있는, 능동적인 힘, 에이전시를 몸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곧 역사 만들기과 문화적 의미의 주체성으로서의 몸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안무 개념은 안무자가 특정 주제아래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엮어가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포스터는 그녀의 글 “Choreographing History”에서 이러한 안무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 그 대상을 신체 움직임에서 역사로 전환시키고 ‘몸’이 적극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논의를 펼친다. 그녀는 세 가지 종류의 몸들 즉 역사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역사가의 몸,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몸들, 지식 속에 나타난 몸들 사이의 상호작용, 대화를 안무과정에 비유한다.²⁹⁾ 이는 이성중심의 철학과 기존 서양학문에서 무시된 ‘몸’이 역사의 객관성을 문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글 내에서 세부 주제에 따라 글자 모양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성 중심의 글쓰기 영역에 도전하면서 단어와 움직임이 함께 춤추는 안무적 글쓰기의 한 유형을 반영하며, 언어적 담론이 움직이는 담론으로 대화함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의미의 생산과 전달이 역사라는 하나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몸이 권력을 흠어지게 하고 재구성하는 방식, 에이전시를 갖고 이론화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포스터를 기점으로 시작된 춤추는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일련의 학자들에게 이어져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들을 바탕으로 춤추는 몸을 논의하는 ‘무용 문화연구’를 발전 시킨다. 재클린 셰 머피(Jacqueline Shea Murphy)³⁰⁾의 편저서 『텍스트로서의 몸들: 이론으로서의 무용, 무용으로서의 문학(Bodies of the Text: Dance as Theory, Literature as Dance)』(1995)는 텍스트로서의 몸들을 연구한

들이 주축이 되어 인문학 학자들과의 역동적 교류 속에서 몸 담론을 활성화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 하다.

29) 이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할 것. S. L. Foster(ed.)(1995), pp. 3-21.

30) UC Berkeley 영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클린 셰 머피는 현재 UCR 무용과 교수이며, 미국 인디언 댄스, 공연학, 젠더, 인종, 비교문화적 접근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다. 이에 대해서는 UCR Department of Dance Faculty <<http://www.dance.ucr.edu/people/murphy.html>>를 참고할 것.

다.³¹⁾ 특히, 무용과 문학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특정 무용에 나타난 문화적, 정치학적 개념들을 읽어내면서 작품이 아닌 텍스트로서의 무용을 고려한다. 이는 생물학적, 자연적 범주의 몸에서 벗어나 텍스트로서 무용을 이론화하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소설, 드라마, 영화와 같은 텍스트에 나타난 무용 표상이 읽혀지고 분석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무용사가 주로 무대위에서 공연되는 무용에만 연구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다른 텍스트에 존재하는 무용을 연구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시켰기에 그리고 각 텍스트의 저자, 감독의 무용에 대한 입장을 함께 분석할 수 있기에 다각도적 접근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문학 이론가들이 글쓰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무용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주목한다. 이는 무용에 대한 기존 개념이 인간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는 춤이었던 것과는 달리, 무용이 하나의 비유로서 글쓰기의 지적 영역과 연결되기에 그 의의가 있다. 결국, 이 저서에서는 다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무용을 정치적 상황을 개념화하고, 강화시키고, 또는 교정하는 방식으로 연구한다. 무용은 때로 젠더화된 정체성, 섹슈얼리티, 차이 등을 재현하기도 하며, 그것을 전복시키거나 초월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잔 리 포스터와 재클린 셰 머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연구들은 무용의 본질이자 핵심인 몸에 대한 고정관념 즉 표현적, 감각적, 신체적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축된 것임을 드러내고, 작품 해석에 있어서 안무자의 의도에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전통적 이해에서 벗어나 무용에 있어서 저자 중심의 텍스트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탈중심, 탈절대적인 포스트구조주의적 이론 전개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을 무대위의 무용 뿐 아니라 문학, 드라마, 영화 속의 무용까지 확대하고 연구 대상으로서의 몸과 무용학자, 독자의 몸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용과 안무를 지적인 글쓰기의 영역으로 동일시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하겠다.

31) 그녀의 편지서에는 무용학자 Ann Cooper Albright, Elizabeth Dempster, Susan Leigh Foster, Mark Franko, Jacqueline Shea Murphy, 연극학자 J. Ellen Gainor, 영화학자 Gaylyn Studlar, 영문학자 Barbara Browning, Ellen W. Goellner, Michael Moon, 불문학자 Felicia McCarren, Christie V. McDonald, 사회과학자 Jacques Derrida가 참여하고 있다.

나. 유색인종의 무용과 대중무용의 재해석

앞서 논의된 수잔 리 포스터와 재클린 셰 머피의 저서들이 무용과 안무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학제간 연구 속에서 확대 시켰다면, 다음에 논의될 세 명의 학자들의 저서 및 글들은 기존의 무용사가 백인 위주의 위대한 안무가와 작품들의 정전을 주로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소외된 유색인종의 무용과 대중무용을 학제간 연구 속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기존의 무용사는 제 3세계나 유색 인종들의 무용을 소외시켜 오거나 단지 종족무용, 오락무용으로서만 묘사하였고, 그러한 전통적 가치관을 벗어난 유색인종의 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재클린 셰 머피는 그녀의 글 “진정성을 규제하기(Policing Authenticity: Native American Dance and the ‘Western’ Stage)”에서 서구 무대에서 공연된 미국 인디언 춤에 대한 진정성³²⁾의 이슈를 문제시하면서, 컨템포러리 인디언 댄스에 나타난 에이전시를 강조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미국 인디언 춤이 서양의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공연될 때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지만, 재클린은 오히려 인디언들이 서양의 무대 무용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재주장함으로써 문화적 에이전시가 있으며 세계에 그 효과를 창조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논의들은 미국 당국이 19세기가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위협스럽다고 여겨진 인디언들의 춤과 문화를 제한된 방식 속에 무대화하게 허용하면서 인디언들의 공동체적 단결을 제지, 약화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재클린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반박하면서 오히려 인디언들이 정치적 저항과 주체성을 전략적으로 강조하여 고대 조상들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변형과 치유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³³⁾

우리가 정열, 쾌락, 관능, 이국적인 대중춤으로만 알고 있는 탱고에 대해 마타 쎄 비글리아노³⁴⁾는 『탱고와 정열의 정치학적 경제성(Tango and the Political

32) 진정성(authenticity)이란 토착민들의 문화를 고정시키고 본질화, 타자화 시켜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서구 관찰자들의 고정 관념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서는 제레미 M. 호손(2000),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정정호 외(역)(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2), p. 109을 참고할 것.

33) 이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 Jacqueline Shea Murphy (2002). Policing Authenticity: Native American Dance and the ‘Western’ Stage. *Discourses in Dance*. Vol. 1, Issue 2, pp. 5-28.

34) University of Hawaii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UCR 무용과에 재직하다

Economy of Passion)』(1995)에서 문화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해석을 보여준다. 그녀는 탱고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의 하층 문화에서 파리, 런던, 뉴욕, 도쿄의 엘리트 문화가 되기까지, 그리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되돌아 오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국 정서, 상품화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제 3세계 여성 무용학자인 썬비글리아노는 제 1세계 백인남성들에 의해 형성된 이론들을 다시 제 3세계 무용에 무조건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식의 재식민화를 경고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그녀는 글로 쓰여지는 것과 춤추어지는 것의 두 가지 담론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³⁵⁾ 즉 전통적 연구 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 전개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자기 반성적(self-reflexive)인 개인적인 고백과도 같은 글이 계속해서 서로 대조되고 있다. 그녀는 탱고에서 남녀 파트너끼리 서로 붙잡고 껴안는 포옹을 하나의 비유로서 이러한 두 종류의 담론에 의도적으로 작용시키면서 전통적 글쓰기와 논의 전개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썬비글리아노의 이러한 수행적 글쓰기는 앞서 논의된 포스터의 안무적 글쓰기의 또 다른 예가 되며, 제 3세계 무용연구에 있어서 춤추는 몸을 통해 의식의 식민화를 전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용 그 자체가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음을 해체 이론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흑인 몸과 무용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발레와 같은 백인 예술에 적합하지 않은 열등한 신체 타입, 노예 근성, 물결치듯 움직이는 몸통과 들쭉거리는 어깨 춤, 공동체 단합을 위한 타악기와 어루러진 토속적인 종족의식춤 일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토마스 드 프란츠(Thomas DeFrantz)³⁶⁾는 1960년에 초연된 엘빈 에일리(Alvin Ailey)의 작품 「Revelations」가 전통적 흑인영가의 음악적 유산

가 현재는 UCLA Department of World Arts & Cultures (WAC) 에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에 나타난 공연의 정치학,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글로벌 제국주의에 있어서 문화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UCLA Department of WAC Faculty <<http://www.wac.ucla.edu/faculty.php>>를 참고할 것.

35) 이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할 것. Marta E. Savigliano(1995). *Tango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assion* (Boulder: Westview Press).

36) 뉴욕대학교에서 공연학 박사학위를 받은 드 프란츠는 무용수이자 안무가이기도 하며, 현재 MIT 연극과 무용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공연예술에 연구

속에서 정치적 저항을 어떻게 암시했는가에 주목한다. 드 프란츠에 의하면, 첫째, 에일리의 무용수들은 니그로에 대한 본질주의적, 경멸적 관념을 전복시키고자 발레와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 레스터 홀튼(Lester Horton), 도리스 험프리(Doris Humphrey) 등의 무용가들의 테크닉을 완벽하게 숙달해 내었고, 재즈 댄스, 브라질의 춤동작들, 서아프리카의 아이솔레이션(isolation)과 리드미한 특성, 음악성 등의 흑인 특유의 문화유산을 전략적으로 결합시켜 흑인 무용을 종족무용에서 콘서트 댄스로 그 위치를 격상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백인의 권력으로 형성된 흑인의 몸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바로 그러한 흑인의 몸을 통해 다시 저항의 시발점이 된다는 푸코의 견해를 반영한다. 둘째, 「Revelations」에서 흑인 영가를 사용하여 개인과 그룹의 신앙을 묘사한 것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오히려 그러한 안전장치 속에서 흑인들의 노예제도와 자유로의 갈망, 해방, 영적 구원을 보여 주면서 미래를 향한 흑인들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흑인들의 몸은 백인 중심의 모더니즘을 성립시킬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해 왔고, 모더니즘의 주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열등한 존재임을 상징해 왔다. 그러나 「Revelations」는 흑인의 몸을 무대위에서 가시화 함으로써 블랙 모더니즘을 성취했다. 에일리는 무대위에서 흑인들과 연결된 위험스럽고도 난장판의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무용의 보편성과 흑인들의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결합시켜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 장면에서의 맨발과, 밤색 계열의 치마의상은 현대무용의 보편적인 맨발의 춤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흑인들의 가난, 고통, 남북전쟁 전의 노예들의 의상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 듀엣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 위험하지 않음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³⁷⁾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교차는 유색 인종이나 권력없는 자들의 정치적 저항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앞서 논의된 포스터와 쎄비글리아노의 저서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MIT Theater Arts & Dance Faculty <<http://web.mit.edu/mta/www/theater/faculty/defrantz.html>>를 참고할 것.

37) 이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할 것. Thomas F. DeFrantz (2004). *Dancing Revelations: Alvin Ailey's Embodiment of African American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에 나타난 수행적 글쓰기가 드 프란츠의 저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임이 주목할 만하다. 드 프란츠는 흑인 음악의 특성중 하나인 브레이크(break)를 각 장(chapter)에 삽입하여 짧고도 독립된 내용으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브레이크는 글의 흐름을 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행적 글쓰기로서 흑인 특유의 음악적 리듬을 강조한 움직임을 반영한다. 그리고 에일리의 작품 세계를 단편적으로 서술해 왔던 기존의 무용사와는 달리, 흑인무용이 곧 이론이 될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보여 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음악과 춤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된 재클린 세 머피, 마타 쎄비글리아노, 토마스 드 프란츠의 연구들은 서구의 백인남성중심적 이론에서 주변화된 유색인종과 대중춤을 재해석하여, 몸이 권력의 작용점이자 저항의 시발점이 된다는 푸코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고, 에이전시를 몸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 성과가 있다 하겠다.

다. 신체 훈련, 문화적 훈육과 실천, 그리고 무용테크닉

기존의 미학적 논의와 무용사는 주로 무대 위에서 거의 완벽하게 공연되는 몸, 모든 이들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몸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수잔 리 포스터의 글 “춤추는 몸들(Dancing Bodies)”은 무용실에서 땀을 흘리며 실제 연습, 훈련중에 있는 몸들에 주목한다. 그녀는 무용수로서의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제 3자적 입장으로 글을 전개한다. 무용실에서 무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권력관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신체적 이상형이 어떻게 무용수의 몸에 각인되고, 이상적인 자아와 비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용 테크닉 훈련 속에 어떻게 실천되어 지는지를 연구한다.³⁸⁾ 이는 춤추는 몸이 문화적인 훈육과 권위가 실행되는 장소이며 동시에 문화 실천적인 맥락을 극장무용의 실제 무용테크닉까지 연결시켜 미학적 영역에까지 위치시키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무용수와 안무가로서의 실기 경험은 무용학자의 글쓰기를 풍부하게 하고 이론과 실기의 상호 연관성을 더욱 깊게 한다. 신시아 진 코헨 불(Cynthia Jean Cohen

38) 이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 Susan L. Foster (1992). *Dancing Bodies. Meaning in Motion*. Jane C. Demonsd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pp. 235-257.

39) 무용가, 안무가, 교사, 인류학자인 그녀는 이 후 Cynthia J. Novack 으로 이름을 바꾸

Bull)³⁹⁾은 약 30 여년간의 다양한 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학적 현장 조사 및 참여 관찰법을 통해 글을 전개한다. 발레, 북미의 컨택트 임프로비제이션(contact improvisation), 서아프리카 가나의 무용 훈련과정, 실제 공연, 관객들의 수용을 분석하면서, 각각을 시각의 우위, 촉각의 우위, 청각의 우위로 특징 지우고, 사회적 주체성이 몸을 통해 어떻게 실행되고 구성되어지는지를 연구한다.⁴⁰⁾ 앞서 포스터가 문화적 훈육과 실천을 신체 훈련과 연관지어 논의했듯이, 불(Bull)은 춤추는 몸이 지식의 대상이며 동시에 지각(perception)이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형성해 나가는 수행적 실체로서의 몸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용경험에서 느끼는 감각적 측면과 무용의 사회적 의미를 발굴하는 지적인 작업을 결합시켜 춤추는 자와 관객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분석 장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라. 응시이론과 키네스테틱스⁴¹⁾

무용이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주요 특성 중 하나는 키네스테틱 측면일 것이다. 수잔 매닝(Susan Manning)⁴²⁾은 그녀의 글 “여성 무용수와 남성 응시: 초기 현대무용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The Female Dancer and the Male Gaze: Feminist Critiques of Early Modern Dance)”에서 무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주변 학문의 이론을 무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고한다. 예를 들어 영화학에서 비롯된 응시이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무용학자들이 공연자와 관객을 위한 키네스테틱 역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매닝은 초기 현대무용가들이 그 당시 젠더

고 1990년에 *Sharing Dance: Contact Improvisation and American Culture*를 발간하고, 이후 암으로 사망한다.

40) 이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 Cynthia Jean Cohen Bull (1997). Sense, Meaning, and Perception in Three Cultures. *Meaning in Motion*. Jane C. Desmond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269-287.

41) 키네스테틱스(kinesthetics)는 근운동 감각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단어의 명확한 이해가 원어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문에서는 키네스테틱(스)로 소리나는 대로 쓰고자 한다.

42) 그녀는 20세기 극장예술 공연과 현대무용의 문화 정치학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Northwestern University 연극, 무용, 공연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Northwestern University Performance Studies Faculty <http://www.communication.northwestern.edu/performancestudies/faculty/Susan_Manning>를 참고할 것.

규범을 어떻게 전복시켰는가 또는 전복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일부 무용학자들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초기 현대무용에 나타난 키네스테틱 표상적 틀이 서로 상반된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주장한다. 즉 초기 현대무용 작품들은 보수적인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보여 주었고, 각 개인에게 새로운 의미의 키네스테틱 주체성을 역동적 긴장 속에서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⁴³⁾ 앞서 불(Bull)이 세 종류의 무용을 각각 관객이 어떻게 수용하고 지각(perception)하는가를 논의했듯이, 매닝도 특정 무용이 개개인의 관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 키네스테틱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는 무용 텍스트와 관객의 수용에 있어서 키네스테틱 측면을 통한 차별화된 관객의 경험을 논의하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는 문화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 무용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포스터, 세 머피, 드 프란츠, 불, 쎄비글리아노, 매닝의 (편)저서 및 글들을 살펴 보았다. 그들의 논의는 기존의 무용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포스트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정전과 비정전 텍스트를 재조명하고 있다. 무용과 안무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확대하고, 해체이론과 함께 유색인종의 무용과 대중무용을 재해석하며, 문화적 훈육과 실천, 신체 훈련, 키네스테틱스 등의 쟁점들을 학제간 연구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의미의 생산과 전복이 무용과 안무에 있음을 논의하면서, 사회 문화적 실천으로서, 사회적 주요 텍스트로서의 무용을 강조한다. 춤추는 몸은 이제 사회적 관계들이 단순히 각인되는 장소가 아니라, 때로 몸을 통해 사회적 의미가 실행되고 생산되는 곳으로써 에이전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무용학과 구별된다. 이는 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무용연구 대상 및 방법론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무용현장에서 무용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며 감상하는 실제적 과정에 있어 관객에게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무용수들이 얼마만큼의 저항의식을 갖고 공연하는가에 있어서 의도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있기에 현실과 이론의 갭이 생길 여지가 있다. 앞서 잠깐 논의된 키네스테틱스는 주변학문을 무용학에 적용할 때 생겨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무용의 특수

43) 이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할 것. Jane C. Desmond (ed.)(1997), pp. 153-166.

성에 근거하기에 이에 대한 좀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2. 학회 및 학회지 측면에서의 고찰

무용학 관련 미국의 주요 학회는 1965년에 조직된 CORD(Congress on Research in Dance)⁴⁴⁾와 1978년에 조직된 SDHS(Society of Dance History Scholars)⁴⁵⁾를 들 수 있는데, 1992년 2월 UC, Riverside에서 “역사를 안무하기”란 주제로 열린 학회는 문화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학제간 연구 속에서 개최된 무용 학회의 한 예라 하겠다. 이 학회는 무용학자들과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 연구와 무용학을 접목하여 몸 담론을 형성한 주요 계기가 된다.⁴⁶⁾ 이 때 과학, 섹슈얼리티, 역사, 영문학, 사회학, 음악학 학자들이 모여 몸과 움직임에 대해 글쓰기를 논의하였고, 이 때 발표된 페이퍼들은 수잔 리 포스터가 같은 제목으로 편집하여 1995년에 책으로 발간되게 된다.⁴⁷⁾ 책의 주요 목차들을 보면, 움직이는 몸들에 대한 서론, 역사적 몸들을 부활시키기, 다양한 학문 분야로의 신체적 개입, 몸들의 실천을 교차하는 이론을 움직이기, 움직이고 있는 몸들로서의 역사가들, 이론을 체현하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목차들은 무용학 연구에 있어서 몸 개념을 춤추는 무용수 몸에 제한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무용을 연구하는 역사가의 몸까지 확대시켜 ‘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역사 속에서 논의되는 춤추는 몸이 단지 대상으로서 연구되어 기록으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몸에 대해 연구하는 역사가의 몸들과 함께 교류하며 역사적 글쓰기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44) History of CORD <<http://www.cordance.org/History.html>>

45) About SDHS <<http://www.sdhs.org/about.html>>

46) Jane C. Desmond(ed.)(1997), p. 52: 이 학회에서 발표한 학자들로는 과학사학자 Mario Biagioli, 영문학자 Sue-Ellen Case, Stephen Greenblatt, Joseph Roach, 공연학학자 Peggy Phelan, 사회학자 Randy Martin, 음악학자 Susan McClary, 역사학자 Thomas W. Laqueur, Miriam Siverberg, P. Sterling Stuckey, Sharon Traweek, Hayden White, 인류, 역사학자 John J. MacAloon, 무용학자 Susan Leigh Foster, Lena Hammergren, Susan A. Manning, Cynthia J. Novack 등이 있다.

47) Susan Leigh Foster(ed.)(1995). *Choreographing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이다. 몸은 이제 분석적 범주로서 역사적 글쓰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몸은 학문 연구의 중요 주제로서 강조되어 다양한 학문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뒤 계속해서 일어나는 학제간 연구 속에서의 무용학회로는 1994년 SDHS의 “학문을 재편성하기: 21세기를 위한 연구와 지도 전략들(Retooling the Discipline: Research and Teaching Strateg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가 브링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열렸으며, 무용학에 있어서 문학이론과 젠더 연구의 적용 및 확대를 논의하였다.⁴⁸⁾ 같은 해에 CORD의 “무용을 생산해 내기, 지식을 생산해 내기: 무용, 젠더, 그리고 예술에 나타난 학제간 대화들(Engendering Dance: Engendering Knowledge: Dance, Gender and Interdisciplinary Dialogues in the Arts)”가 텍사스여자대학교(Texas Woman’s University)에서 열렸다. 그리고 데니슨 대학교(Denison University)에서는 아메리칸 댄스 길드(American Dance Guild)의 “몸 위에 쓰여진(Written on the Body)”란 학회가 열렸다. 한편, 영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의 학제간 무용학회는 계속적으로 개최되었다. 1994년 런던의 로햄프톤 학교(the Roehampton Institute)에서는 프레드릭 아쉬톤(Frederick Ashton)을 기념하기 위한 다학제간 학회 “프레드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Following in Sir Fred’s Footsteps)”가 열렸으며, 1995년에는 쉘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경계 긴장들(Border Tensions)”이란 주제로 열렸다.⁴⁹⁾ 미국과 영국에서 개최된 이러한 학회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역동적 교류를 통해 무용학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한 예라 하겠다.

2002년에 창간된 무용 학회지 『무용에 나타난 담론들(Discourses in Dance)』 또한 학제간 연구 속에서 새로운 무용학 발전의 한 예로 주목할 만하다. 주로 미국과 영국의 무용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무용이론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 오고 있다. 특히,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무용을 강조하면서, 문화연구와 학제간 무용 연구를 격려한다. 학회 편집장으로는 수잔 리 포스터와 영국 무용학자 램시 버트(Ramsey Burt)가 있으며, 편집위원들로는 미국 무용학자인 마크 프

48) Jacqueline Shea Murphy *et al.* (eds.)(1995), p. 12.

49) Gay Morris(ed.)(1996), p. 1.

랑코(Mark Franco), 수잔 매닝, 브렌다 딕슨 갓칠드(Brenda Dixon Gottschild), 마타 싸비글리아노, 영국 무용학자 헬렌 토마스(Helen Thomas), 프랑스 무용학자 이사벨 지노(Isabelle Ginot), 스웨덴 무용학자 레나 해머그렌(Lena Hammergren), 타이완 안무가 린화민(Lin Hwai-min) 등이 있다.⁵⁰⁾ 구성원들의 다양한 국적을 고려할 때, 이 학회지가 새로운 무용학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무용 문화연구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한 예를 보여 준다.

IV. 맺음말

본 연구자는 앞서 논의를 통해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들이 최근 무용학 발전에 끼친 영향을 주로 미국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학제간 연구 속에서 새로이 발전해 오고 있는 무용학은 젠더, 계급, 인종, 표상, 정체성, 섹슈얼리티, 대중 문화, 진정성, 전유, 수행성, 신체적 훈련, 전략적 정치적 저항 등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권력’과의 관계 속에 논의됨을 알 수 있다. 춤추는 몸은 이러한 이슈들을 체현하고 때로 전복시킬 수 있기에 사회적 주요 텍스트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문화연구의 주요 쟁점들이 학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문화연구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는 정전 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무용사를 재평가하게 하였고, 무용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확대하여 극장예술에서 대중문화, 대중춤, 일상적 움직임, 학자와 독자의 몸까지 포함시켰다.

무용학 문헌들 측면에서, 학회 및 학회지 측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수잔 리 포스터를 기점으로 하여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발전해 오고 있는 최근 미국 무용학 한 흐름은 전통적 무용사의 개념을 무용학(dance studies)으로 확대시켜 ‘무용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of dance)’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이는 체현된 사회 문

50) Discourses in Dance <http://www.laban.org/laban/publications/discourses_in_dance.phtml>

화적 실천으로서 무용을 강조하고 있고, 무용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학제간 연구 속에서 몸 담론을 형성하여 무용학이 학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하였고, 학계의 주류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연구의 대부분은 관객이 무용을 실제로 바라보고 감상할 때 발생하는 직관적 감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용의 특수성에 근거한 키네스테틱스와 같은 이론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무용과 사회권력 관계 속에서의 연구는 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모든 무용이 사회권력 문제로 환원될 수 없음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타 분야의 인문학자들이 학제간 연구 속에서 무용학 전공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예측된다. 무용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문,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더욱 요구된다. 무용학의 발전은 곧 무용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김말복은 무용이 학문이 되기 위해서 실기와 이론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실기 부분과 그 아래를 받치는 부분의 이론”⁵¹⁾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무용학이 실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무용 실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용학은 무용학자만의 영역이고 무용실기는 무용수만의 영역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무용학에 있어 문화연구의 도입은 학문으로서의 무용학을 가능케 하고, 학계의 주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무용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무용학자들은 타 학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무용학의 연구 방법 및 대상을 확대하고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신체 움직임을 근거로 한 무용이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와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다매체의 결합으로 무용의 개념 또한 해체되고 있다. 언어와 대사를 근거로 한 연극도 언어를 해체하여 동작 위주의 종합 공연예술로 나아가고 있고, 움직임 위주의 무용도 언어와 대사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연극과 무용의 경계가 해체 되기도

51) 『댄스포럼』(2005), 10월호, p. 75.

한다. 무용의 핵심이자 주요 매체인 몸, 즉 뼈와 살로 이루어진 신체적 몸은 이제 멀티미디어 예술, 사이버 공간, 가상현실 속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바뀌어가고 있다. 즉 무용 표현의 주요 도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예술과 학문분야의 경계 해체, 생활과 예술의 경계 해체의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무용학이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무용학 연구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소화한 다음, 주체적이고도 비판적인 수용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페미니즘의 ‘개인적 것은 정치적이다’⁵²⁾라는 유명한 문구는 남성중심 사회 속에서 밀려난 사소한 ‘개인’의 영역들이 오히려 정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중심주의 가치체계에서 범주화된 고정개념들 즉,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 중심과 주변, 정전과 비정전, 과학과 영성(spirituality), 현대와 전근대, 보편성과 특수성 등의 이분법적 가치관을 해체하고 중심에서 밀려난 주변의 비정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앞서 논의된 마타 쎄비글리아노의 탱고 연구사례는 백인남성 우월주의 시각에서 형성된 서구이론을 제 3세계 여성학자로서 제 3세계 무용 연구에 적용할 때 발생하기 쉬운 의식의 재식민지화를 경고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보여준 한 예라 하겠다. 한국 무용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서구이론을 무조건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재식민지화의 위험성을 늘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권력을 해체하고 폭로하는 것이 탈식민주의적 연구 및 글쓰기의 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적 연구 및 작업은 일회성이 아닌 끊임없이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기반을 계속해서 다져가야 할 것이며, 주변 분야의 학문의 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학의 독특성을 살린 접목이 필요할 것이다. 무용학의 독자성과 타학문과의 역동적인 교류의 조화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무용학이 학문으로서 인정받고 학계의 주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2) 크리스티 아테어(1992). 『춤, 여성, 그리고 남성』, 김채현 (역)(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 17.

■참고문헌

- 김경애, 김채현, 이종호(공저)(2001). 『우리무용 100년』. 서울: 현암사.
- 김성곤(2003). 『문화연구와 인문학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현정(2005).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다양성 연구. 『무용
예술학연구』 15, 봄호, 77-98.
- 『댄스포럼』(2005). 춤예술의 기초는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효명세자 기념사업
회를 발족해 학술행사 갖는 김말복씨. 10월호, 75-81.
- 롤랑 바르트(1977). 작품에서 텍스트로.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
(역음). 서울: 눈빛, 1999, 35-44.
- 롤랑 바르트(1977). 저자의 죽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역음).
서울: 눈빛, 1999, 27-34.
- 미셸 푸코(1969). 저자란 무엇인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역
음). 서울: 눈빛, 1999, 45-63..
- _____(1975).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오생근(역). 서울: 나남출판,
1998.
- _____(1976). 『성의 역사: 제 1권 앞의 의지』, 이규현(역). 서울: 나남출판,
1997.
- 벤 애거 지음(1992). 『비판이론으로서의 문화연구』, 김해식 (역). 서울: 도서출
판 옥토, 1996.
-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 제 1호, 2005년, 273-274.
- 앤드류 에드거, 피터 세즈워(편)(1999). 『문화이론 사전』, 박명진 外(역). 서울:
한나래, 2003.
- 이정희(1994). 대학 무용(학)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한, 미 대
학 무용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원
논문, 미간행.
- 임옥희(1999). 법앞에선 수행적 정체성. 『여성이론』 1,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제레미 M. 호손(2000).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정정호 外 (역). 서울: 동인,

- 2002.
- 조기숙(2005). 서구의 무용학 현황과 한국의 무용학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무용학회』 44, 213-229.
- 조셉 칠더즈, 게리 헨치(편)(1995). 『현대 문학, 문화비평 용어사전』, 황종연(역). 서울: 문학동네, 1999.
- 지아우딘 사르다르 지음(1997). 『하룻밤의 지식여행: 문화연구』, 이영아(역). 서울: 김영사, 2002.
- 크리스티 아테어(1992). 『춤, 여성, 그리고 남성』, 김채현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Ann Daly(1991). What Revolution?: The New Dance Scholarship in America. *Ballet International* 14, no. 1 (January), 48-53.
- Curt Sachs(1937). *World History of the Dance*.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1963.
- Cynthia Jean Cohen Bull(1997). Sense, Meaning, and Perception in Three Dance Cultures. *Meaning in Motion: New Cultural Studies of Dance*. Jane C. Desmond(ed.).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67-287.
- Cynthia J. Novack(1990). *Sharing the Dance: Contact Improvisation and American Cultur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Eve Sedgwick(1993). Queer Performativity. *GLQ: A Journal of Gay and Lesbian Studies* 1, no. 1, 1-16.
- Gay Morris(ed.)(1996). *Moving Words: Re-writing Dance*. New York: Routledge.
- Jane C. Desmond(1997). Introduction. *Meaning in Motion*. Jane C. Desmond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25.
- Jane C. Desmond(1997). Embodying Difference: Issues in Dance and Cultural Studies. *Meaning in Motion*. Jane C. Desmond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9-54.
- Jacqueline Shea Murphy & Ellen W. Goellner (eds.)(1995). *Bodies of the Text: Dance as Theory, Literature as Da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Jacqueline Shea Murphy(2002). Policing Authenticity: Native American Dance and the 'Western' Stage. *Discourses in Dance*. Vol. 1, Issue 2, 5-28.
- John Martin(1946). *The Dance*. New York: Tudor.
- John Martin(1939). *Introduction to the Dance*. New York: Dance Horizons, 1968.
- Judith Butler(1990). *Gender Trouble: Feminism &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Judith Butler(1993).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 Marta E. Savigliano(1995). *Tango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assion*. Boulder: Westview Press.
- Raymond Williams(1961). *The Long Revolu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ymond Williams(1958).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 Richard Hoggart(1957). *The Uses of Literacy*. London: Chatto & Windus.
- Roland Barthes(1958).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New York: Hill & Wang, 1972.
- Roland Barthes(1967). *The Elements of Semiology*.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 Colin Smith. New York: Hill & Wang, 1978.
- Roland Barthes(1977). *Image, Music, Text*. Translated by Stephen Heath. New York: Noonday Press, 1988.
- Susan Leigh Foster(1986). *Reading Dancing: Bodies and Subjects in Contemporary American D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san Leigh Foster(1992). Dancing Bodies. *Meaning in Motion*. Jane C. Desmond(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235-257.
- Susan Leigh Foster(ed.)(1995). *Choreographing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usan Leigh Foster(ed.)(1996). *Corporealities: Dancing Knowledge, Culture, and*

Power. New York: Routledge.

Susan Leigh Foster(1996). *Choreography and Narrative: Ballet's Staging of Story and Desire*.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Susan Manning(1997). The Female Dancer and the Male Gaze: Feminist Critiques of Early Modern Dance. *Meaning in Motion*. Jane C. Desmond (e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153-166.

Suzanne Langer(1953). *Feeling and Form: A Theory of Art*. New York: Scribner.

Suzanne Lannger(1957). *Philosophy in a New Ke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homas F. DeFrantz(2004). *Dancing Revelations: Alvin Ailey's Embodiment of African American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Umberto Eco(1976).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About SDHS <<http://www.sdhs.org/about.html>>

Discourses in Dance <http://www.laban.org/laban/publications/discourses_in_dance.phtml>

History of CORD <<http://www.cordance.org/History.html>>

MIT Theater Arts & Dance Faculty

<<http://web.mit.edu/mta/www/theater/faculty/defrantz.html>>

Northwestern University Performance Studies Faculty

<http://www.communication.northwestern.edu/performancestudies/faculty/Susan_Manning>

UCLA Department of World Arts & Cultures Faculty<<http://www.wac.ucla.edu/faculty.php>>

UCR Department of Dance Faculty <<http://www.dance.ucr.edu/people/murphy.html>>

논문투고일	2006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5일
심사완료일		7월	20일

Abstract**A Trend of Cultural Studies of Dance Initiated by
Susan Leigh Foster**

Hyun Jung Kim, Ph.D.

*Lecturer**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University, and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the critical issues of cultural studies have influenced the recent development of danc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Cultural studies is an umbrella term that includes theoretical approaches drawn from poststructuralism, postcolonialism, multiculturalism, contemporary Marxism, new historicism, semiotics, psychoanalysis, deconstruction, and feminism. Cultural studies, which investigates the natural as a social, cultural, historical construction, has strong effects on methodologies in dance field as well as the humanities. Susan Leigh Foster initiated a trend of interdisciplinary dance scholarship in 1986 and since then some scholars have facilitated it following the theoretical approaches of cultural studies. The dance scholars examine dance as an embodied social, cultural practice. They enable dance studies previously marginalized within the academy to be a major academic discipline. Dancing bodies as a primary text manifest or subvert meaning and identity.

In South Korea, more and more universities have offered cultural studies programs. The interdisciplinary programs are based on art history, film studies, gender studies, popular culture, and mass media, not on dance field. Considering the stagnant situation of domestic dance academ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ebates of cultural studies to dance scholarship. Cultural studies opens up a possibility for dance scholarship to go into wider academic communities.

keywords: cultural studies(문화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 연구), dancing bodies(춤추는 몸들), embodied cultural practice(체현된 문화적 실천), dance studies(무용학)